

2022학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2022. 10. 12.(수) / 총무과

□ 회의 개요

- 일시: 2022. 10. 12.(수) 14:00~14:13
- 장소: 본관 3층 대회의실
- 참석자: 재적위원 9명 중 5명 참석
 - 당연직: 교학처장(위원장), 교학제2부처장(부위원장), 총무과장
 - 위촉직: 학생대표 2명
- ※ 간사: 대학회계 예산담당 사무관, 배석: 업무담당주무관
- 불참자: 전임교원 1명, 학부모 1명, 전문가 1명

□ 회의 안건

- 본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(안)
 -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단위별 위원 수, 위원·위원장의 선임방법 및 위원의 임기

□ 회의 결과

- 한국예술종합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(안) : 원안 가결
 - 재적위원 9명 중 참석위원 5명 전원 동의

□ 주요 회의 내용

- (위원장) 재적위원 9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의사 정족수가 충족됨으로 성원 개회를 선언하고 예산담당 사무관에게 진행을 요청함. [개회 시각 14:00]
- (예산담당 사무관) 참석위원 소개와 2022학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 안건에 대해 설명함.
- (위원장) 위원을 구성하는 내용이므로, 자료를 보시고 궁금하거나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.
- (부위원장) 해당 안건은 등록금심의회위원회 뿐만 아니라 총학생회가 구성

되지 않았을 경우에 학생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, 다른 규정도 개정하거나 개정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임.

- (위원장) 재정위원회는 이미 해당 개정(안)처럼 개정이 되었고, 그에 따라서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.

이번 학년도는 총학생회가 구성이 안 되서, 어려움이 많음. 현재, 비대위가 구성되어 있지만, 만약에 비대위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6개월 학생들이 추천하는 결로 추천의 범위를 넓혀 놓은 것임.

학생대표가 구성원으로 못 들어올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, 가장 중요한 학생대표가 들어와야 할 필요성으로 해당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고, 위원수는 9명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함.

- (총무과장) 조문 배치를 새로 한 이유는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하여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명문화하고자 함. 구성 위원에 대한 규정 내용은 현행유지를 하고, 배치를 정리한 것뿐임.

- (위원장)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물어봄.

- (학생대표) 학생대표 3명 중에서 인원을 교체하거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위임 할 수 있는지 질문함.

- (위원장) 회의에 못 올 경우를 말하는지 학생대표에게 물어보고, 대리 출석이 가능한지 예산담당 사무관에게 물어봄.

- (총무과장) 위원은 대리출석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, 의결권이 없음.

- (위원장) 회의에서 대리출석해서 내용을 숙지할 수 있지만, 의결권은 없다는 내용에 동의함.

- (총무과장) 모든 위원회가 마찬가지임. 그렇지 않다면, 재적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명문화 해놓지 않음. 그러면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임.

- (학생대표) 해당 질문은 학생대표 3명들이 위촉기간 동안 임기에 임하면 좋겠지만, 학생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1년 임기를 다 못 채울 경우를 물어본 것이라고 함.

- (총무과장) 본인이 위촉직을 그만 두지 않으면, 대리출석은 의미가 없고, 그만 둔다면 재위촉 할 수 있음.

- (위원장) 휴학이던 어떤 형태이던, 나머지 임기를 못 채울 경우에는 위촉을 해야 할 것 같음.
- (예산담당 사무관) 규정 제2조 제5항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임기 중 자격이 상실 될 경우에 해촉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고 되어 있음. 대신 참석은 불가능 할 것 같고, 휴학을 하거나 위원 으로서 자격을 상실하면 재위촉을 해서 잔여 임기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음.
- (학생대표) 보궐위원이 되었을 경우에도, 똑같이 6개월 학생대표의 만장 일치가 있는 다음에 선출될 수 있는지 물어봄.
- (예산담당 사무관) 학생대표는 마찬가지로임.
- (위원장) 보궐위원 위촉방식도 일반위원 위촉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음.
- (예산담당 사무관) 비대위원회 임기가 11월까지 인지 물어봄.
- (학생대표) 비대위 위원의 임기가 아니라, 연극원 학생회가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었는데. 그분들의 임기가 11월 말로 알고 있음. 빨리 다른 사람을 선출해야한다는 상황임을 전달받았음. 학교 측과 동일하게 구성의 어려움을 토로함.
- (예산담당 사무관) 12월에 공백이 생기면, 학생대표를 추천받는 부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. 6개월의 대표가 구성이 되어야할 텐데...서로 총학 부재의 어려움을 얘기함.
- (위원장) 내년에는 총학이 구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음.
- (예산담당 사무관) 참여 학생이 적어서 그런 것 같음.
- (학생대표) 코로나를 겪으면서 학생과 학교 간의 유대감 및 소속감이 낮아져 있어서 더욱 그런 것 같음. 11월에 예술제가 진행되는데, 그 이후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여, 구성하도록 하겠음.
- (위원장) 다른 의견이 없고, 재적위원 5명 전원 동의함으로,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하고 폐회를 선언함.

[폐회 14:13]